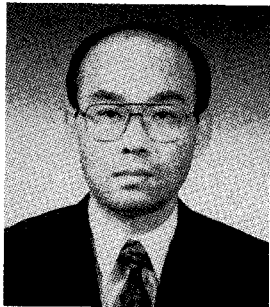


## 21C에도 낙농가, 유업체, 정부가 힘을 합쳐 경쟁력제고에 매진해야 한다



소 만 호  
농림부 축산국장

“  
정부에서는 당면한 낙농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경  
영자금지원확대, 조사료  
등 부존자원 생산기반 확  
충, 젖소산유능력검정을  
통한 낙농경영 합리화 유  
도, 환경친화적 낙농업 육  
성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 사다난 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발하  
는 새천년은 낙농육우인 여러분  
에게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  
를 기원한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지난  
해까지 우리 낙농업계를 돌아보  
면 WTO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의 어려움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불어닥친 IMF사태로 그동안 늘  
어났던 우유 소비가 크게 줄어  
분유재고가 한 때 적정재고의 배  
가 넘는 1만6천톤을 넘게 되었  
고, 젖소 송아지가격이 50만원  
이하로 폭락하여 송아지를 길거  
리에 내다 버리는 등 큰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낙농인 여러분들의 단  
합된 의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분유과잉재고 문  
제가 해소되었고, 젖소 송아지  
가격도 IMF 이전으로 회복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중  
심으로 낙농인이 주체가 되어 진  
행되고 있는 낙농자조금사업이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낙농인들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낙농발전을 위  
한 한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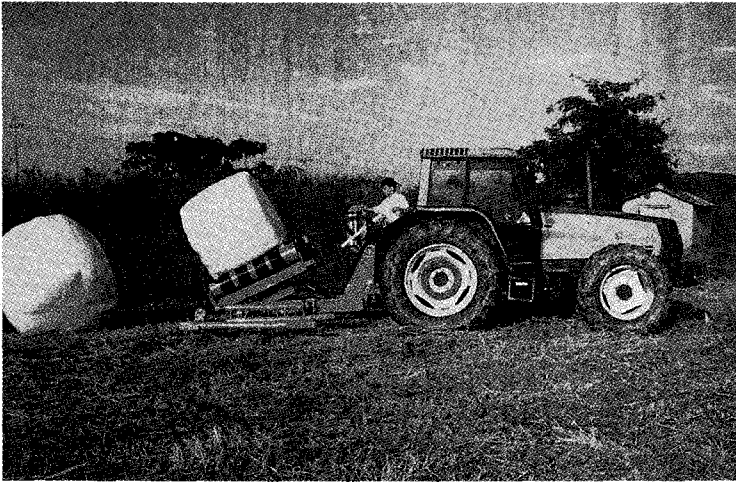
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낙농가  
들의 노력으로 낙농진흥법에 따  
라 민간 자율기구인 낙농진흥회  
가 설립 운영되고 원유의 집유일  
원화 및 검사공영화가 본격적인  
집행 체계를 갖추므로서 21세기  
낙농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뜻깊  
은 해였다고 생각한다.

중전의 낙농제도는 개방체계  
에 맞는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  
지 못해 수급불안이 반복되었고  
원유를 유업체와 낙농조합이 농  
가로부터 개별적으로 직접 집유  
함에 따라 중복집유 등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  
니라 원유검사를 구매자인 집유  
주체가 담당함으로써 검사결과  
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  
었다.

그러나 새로운 낙농제도는 낙  
농가가 낙농진흥회와 계약함으  
로써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유대  
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을 걱정하  
지 않고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  
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  
으며, 도지사가 공정하게 원유검  
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유검사 분  
쟁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집유가 낙농조합으로 일  
원화되어 집유거리와 시간을 단



축하고 원유를 공장까지 직송하는 체제를 갖추으로써 집유비용이 절감되고 원유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낙농진흥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낙농육우인 여러분 및 유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도 낙농진흥회에 참여하는 낙농가, 집유조합 및 유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WTO차기협상은 앞으로 유제품 등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가 주요 협상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국내 낙농산업보호를 위하여 조치한 모조분유 수입제한조치가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있어 수입제한조치 유지가 어렵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서는 열악한 낙농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낙농가, 유업체, 생산자단체, 정부가 하나로 뭉쳐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당면한 낙농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경영자금지원확대, 조사료 등 부존자원 생산기반 확충, 젖소산유능력검정을 통한 낙농경영 합리화 유도, 환경친화적 낙농업 육성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유권역을 효율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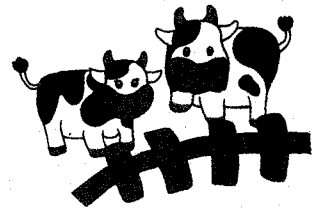
조정하는 등 집유일원화사업을 조기정착시켜 집유비용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원유 인수자금, 참여농가에 대한 시설·장비 교체 지원 및 집유조합 유통활성자금 등을 집중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농가, 생산자단체, 유업체와의 수평적 합동광고를 추진하는 등 유제품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들과 IMF 사태하에서 우리 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낙농가, 생산자단체, 유업체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21세기 낙농산업은 개방화시대에도 튼튼한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낙농산업이 한발 더 나갈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다시 한번 낙농육우인 여러분에게 희망이 넘치는 새천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

⟨필자연락처 : 02-504-9430⟩



♣ 낙농가는 우유사랑! 소비자는 우유사랑! ♣